

“며느리 삼고 싶었던 할머니, 요구르트 쥐어주던 환우 기억에 웃으며 일할 수 있어”

결핵의 시작과 끝에 도말·배양검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X-ray로 판독이 불가능한 결핵균도 정확하게 판정해낸다. 그렇기에 한번 배양에 들 어가면 8주간의 세심한 관찰아래 계속된 판정과 그에 따른 시약을 일일이 만들어내야 하는 어렵고도 힘든 시간의 연속이다. 이 어렵고도 고된 과정을 11년간 오직 한 분야에서 묵묵히 해내는 사람이 있다.

대한결핵협회 인천지부 이흥석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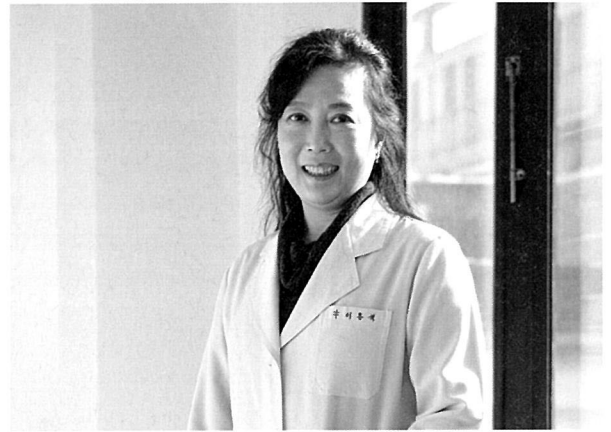
대전지부와 서울복합자의원을 거쳐 인천지부 사업과에서 임상병 리사로 근무하기까지 약 30여 년을 몸담고 있는 이흥석 계장은 오랜 경력만큼 업무도 베테랑이다. 지부로 발령받았을 당시만 해도 3명이 같은 과에 있었지만 세월 따라 경기 따라 하나둘씩 떠나 가고 이제 혼자 남아 이 모든 일들을 묵묵히 수행해내고 있다. 그 공을 인정받아 지난 6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우수직원상을 수상 하게 됐다.

꽃이 피고 지고의 인고의 세월조차 이곳에 허용한 그녀를 만나 그 동안의 해로를 잠시 들여보았다.

“제 나이에 일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렇게 상까지 주시니 너무 감사할 따름이지요.”

그녀가 지금껏 협회에 몸담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 결핵연구원에 임시직을 받을 당시 그녀가 받은 인상을 정말 대단했다.

“천사들만 근무하는 줄 알았어요. 바로 여기다 싶었죠. 그게 지금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스트레스 받게 되는 것이 사람관계잖아요. 지역과 천국을 오가는 것도 한끝 차이인데, 서로 돕고 살아가면 얼마나 마음이 훈훈해져요?!”



하지만 고민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었다. 집과 직장의 거리 탓에 업무가 많을 때면 더욱 힘에 부친다고 한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녀를 웃게 하는 것은 떠오르는 환우들 덕분이라고. 한번은 흥 성에서 왕래한 한 할머니가 고맙다며 며느리 삼고 싶다고 말을 건네기도 하고, 또 한 번은 한 여성이 그녀의 말 한마디 덕분에 힘을 얻었다며 어려운 형편에도 매일같이 찾아와 그녀 손에 요구르트를 꼭 쥐어준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 모두가 감사한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녀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묵묵히 옆을 지켜주는 남편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녀가 잠시 흘린 말에 따르면, 남편은 직장 생활로 가정을 돌보기 어려운 그녀를 위해 지금까지 불평 한마디 내뱉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한다.

“2014년엔 저도 다른 분들에게 힘이 되고 또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라는 그녀는 덧붙여, 남편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고마움을 보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 해를 보낼 것이라 는 다짐을 해보였다. †